

“이웃과 훈훈한 마음을 나누시다”

호남불교계, 설·입춘 맞아 자비 나눔 전해

새해를 맞이하는 입춘(立春)과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호남불교계의 자비의 온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봄을 상징하는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부터 입춘절기가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를 한다. 아낙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남정네들은 겨우내 날려온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며 한 해 농사에 대비했다. 사찰에서도 가정과 나라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많은 기도과 불교적 의식들이 행해진다.

광주전남지역사찰에서는 최근 십 여 년 전부터 입춘을 맞아 하나의 좋은 풍습이 생겼다. 바로 '자비의 쌀'이다.

신도들은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자비의 쌀'을 사찰에 기부하고, 사찰에서는 모아진 쌀을 어려운 이웃과 불교계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2월 4일 입춘일에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의 쌀' 2,400kg을 지역 불교계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일명 스님은 "십시일반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다운 공덕을 짓는 것이며,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가는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4회째 맞이하는 이번 전달식에는 자비의 쌀을 포함해 동전 60여 만원도 함께 전달됐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자비신행

회(이사장 이화영),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스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스님),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지부장 고현), 제1전투비행단 호국 금강사(주지 삼연스님) 등은 단체별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도 같은 날 신도

광주전남 불교계 자비의 쌀 모아
전북 불교계 밀반찬 설 물품 전달
조손 가족·소년소녀가장돕기도

들이 기부한 쌀 2,000kg을 광산구청 정드림스타트를 통해 조손·결손가정에 전달했다. 쌀은 월곡2동 주민센터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용아 아동센터,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됐다. 비전사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약 15,000kg의 쌀을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이번 입춘에 마련된 자비의 쌀은 지역의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로 지원된다"며 "신도들이 입춘기도에 동참하며 십시일반 쌀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첫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자비의 쌀을 2월 23일 지역불교계단체를 통해 환우가족과 독



광주 금선사는 2월 4일 입춘을 맞아 자비의 쌀 2,400kg을 전달했다.

거어른, 지역 노인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범선)는 독거어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한다. 입춘기도를 통해 마련된 숙우 300여 벌을 자비신행회를 통해 광주 동구지역 독거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는 전북지역 각 사찰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길)는 2월 3일 관내 삼학동 조손가족(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를 부양하는 가족) 37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0만원 상당의 재래식 김을 삼학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에는 군산교도소 불자직원들로

구성된 불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익산 대원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 밀반찬을 제공했다. 익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진받은 7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래떡, 쇠고기, 김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익산 능인회 부회장 김덕순 포교사는 설을 앞두고 굴비등 제수음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교대학교와 군법당, 군산교도소 등에 전달했다. 열흘동안 굴비, 한과, 천마차 등을 판매한 김덕순 포교사는 125만원의 수익금으로 불교대학교에 난방기구를 마련해 준 것을 비롯해 익산 관음사 어린이 법회, 군산교도소 법당, 임실 탄약창, 소년원 등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석불사 석불좌상 또다시 맘흘려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노전대통령 서거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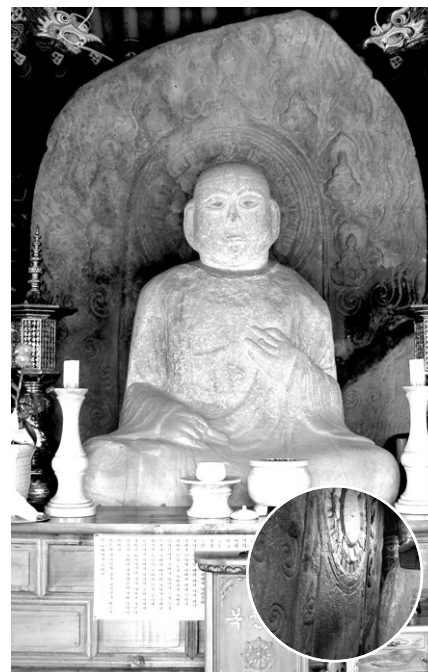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길 때면 맘을 흘린다는 익산 석불사(주지 휴암) 석불좌상이 또다시 맘을 흘려 나라에 중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석불사 종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2월 1일 오후 5시경 예불준비를 위해 법당에 들어갔다가 석불좌상이 맘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며 "밤 10시 경까지 불두 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 광배부분이 흥건하게 젖었고 무릎부분에 고일 정도로 많은 양의 맘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후적인 영향이 인지는 모르겠지만 석불사 석불좌상이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맘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고 스님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국가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석불사 석불좌상(보물45호)은 지난 한국전쟁과 IMF외환 위기,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인바 있다.

600년 경 백제 시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석불사 석불좌상은 삼국시대 환조불로서 국내 최대의 것이며 광배 또한 최대 규모다. 높이가 156cm나 되는 규모로 당



석불사 석불 좌상과 물방울이 맺혀 광배 부분(원인)

당한 자세로 얇게 표현된 법체에 통견의 법의를 걸고부좌한 무릎 위로 흘러 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진연란 당시에는 왜장이 석불의 머리부분을 훼손했으며 최근 이 부분이 복원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충청 지역 설맞이 자비나눔 '훈훈'

동학사·연각사 '자비의 쌀' 전달

설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과 단체가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자비행을 펼쳤다. 계룡산 동학사(주지 유곡)는 2월 5일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동학사는 자비의 쌀 총 3000kg으로 2000kg은 공주시에 기부해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공주노인복지센터에 지정 기탁된다. 또 은 आयु치원과 부부나어린이지, 자비원에 각각 300kg,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100kg을 전달했다.

부여 연각사(회주 불일)도 2월 6일 자비의 쌀 20kg 108포를 부여군에 기탁했다. 이 쌀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노덕현 기자

53선지식과 함께 하는 지혜찾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책 읽는 모임 '보리수아래' 출범

새 해를 맞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가 53멘토와 함께하는 책 읽는 모임 '보리수아래' 소모임을 시작한다.

'보리수아래'는 53선지식을 상징하는 53명의 멘토가 릴레이로 책을 읽으며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명의 멘토가 정해지면 멘토가 선정한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광주 전지역에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은 최조다.

내용은 편견 깨트리기, 변화의 흐름 이해하기, 대안과 전망을 세우기, 시대를 읽는 눈 갖기(올바른 관점 갖기), 삶이 자유

롭기 위한 길 찾기 등의 주제를 담아 멘토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멘토에는 지역 시인, 시민사회활동가, 교수, 종교인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준비모임을 거쳐 오는 3월 19일 시작한다. 행사는 시인이자 푸른광주21협의회 김경일 사무총장을 첫 멘토로 시작한다.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책이 첫 모임의 주제 책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범일 스님은 "다양한 멘토가 감명깊게 읽은 책을 함께 공유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을 위한 천도재

광구전남불교신도회 2월 23일 광주 수자타 주자장서

고속도로에서 죽은 동물들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된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2월 23일 광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주자장에서 '제1회 교통사고 예방·안전운행 기원 및 로드킬(Road Kill) 희생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로드킬은 서식지의 이동 통로를 잃어버린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건너다 당하는 사고를 뜻하는 단어다.

이날 열리는 천도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고속도로에서 삶을 마감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안전한 차량운행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주최하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을 증명모은,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을 지도로 진행

된다. 행사는 합동 천도재와 법요식, 안전운행기원 축수의식 순이다.

지용현 회장은 "이번 천도재를 계기로 운전을 조심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해마다 교통안전을 위해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2,069건, 2011년 상반기에만 1,374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다. 비공식 사고까지 포함하며 훨씬 더 많은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생태통로 확보 미비로 운전자들의 방어운행 만이 로드킬을 막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야행동물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꼭 확인하고 감속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062)385-1336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3년 아름다운 나눔 여행을 떠나요

자비신행회 2월 1일 정기총회 개최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2013년 '아름다운 나눔 여행을 떠나자'는 주제로 새해 주요 활동을 결의했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2월 1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대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업결산 승인과 함께 2013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나눔과 복지사업(부설 기관: 행복한 쉼터/한빛노인복지센터/십시일반 밤차/정소년복지/두손모야호스피스) △교육·문화사업(부설기관: 재가화엄학원/한빛문화아카데미/다예가/불교자원봉사자교육) △열린 공동체 사업(부설기관: 자비나눔 봉사단/한꽃시민선방/모금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결의했다.

나눔과 복지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행

복한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구조 확립과 노인복지센터, 청소년밀방산, 십시일반 밤차 등 기존 복지사업들의 질적 성장과 히말라야 어린이 지원사업의 성과 배출을 목표로 한다.

교육·문화사업 분야는 재가 화엄학원의 열린참여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차문화아카데미 전문화다.

열린공동체 사업은 자립형 운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후원회원 개발과 모금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이를 전달할 조직구조를 상설화 할 것을 결의했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행복한 쉼터의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개인 및 단체의 기금 출연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모금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재정안정화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명판 사진 3매
- ※ 원본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특성과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대법사과정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